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尊制)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불로장생의 꿈 곧 이루어지려나

# 억만장자들 불로초 개발에 거금 투자

불로장생은 인간의 오랜 꿈이다. 그 옛날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 이야기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오늘날에 또 다른 진시황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1월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 벨리의 억만장자들은 최근 잇따라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재미교포 펀드 매니저 윤준규 박사는 생쥐의 수명과 생체 활력을 50%까지 증가시키는 데 100만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으며, 구글과 오라클,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기업을 세운 창업자들이 바이오 기업을 세우거나 의학 연구재단에 거금을 지원해 노화 연구에 힘을 실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6월 24일경 평택재단 예배후 내린 이슬성신 감로가 불로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영생을 주장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과학의 발달로 영생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사례 1:** 미국의 유명 한 과학자인 레이 커즈웨일(56)은 2004년 11월 출판한 <환상적 여행: 영원히 오래 살기(Fantastic Voyage: Live Long Enough to Live Forever) 로데일 북스 출판사>란 책에서 인간 불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했다. 그는 이 책에서 2만~3만개의 유전자로 구성된 인체를 작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비유하고 발병 유전자를 조작해 발병 자체를 막거나 노환을 차단하거나 느리게 하는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헬

구(血球) 크기의 '나노봇(Nanobots)'이란 아주 작은 로봇이 곧 인간에 의해 발명될 것이며 바로 그 수백만 개의 '나노봇'을 혈관에 투입해 심장질환과 암, 당뇨, 간질환 등 사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젊음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사례 2:** 2004년 12월 3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오브리 드 그레이(Aubrey De Grey) 박사는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사람이 1000살까지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상된 세포와 분

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SENS-(Strategies for Engineered negligible Senescence) 프로젝트)와 기존의 의료 기술이 합쳐져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미 각 부분별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쥐를 통한 종합적인 임상 실험은 향후 10년, 그리고 인체 실험은 추가로 10년이 더 소요될 것인데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인류는 노화의 공포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어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3:** "이날 초 일본 NHK방송은 60세 나이를 20세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의 약물을 소개했다. 미국 워싱턴의

대의 이마이 신이치로 교수는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NMN)'란 생체물질을 사람으로 치면 60세에 해당하는 생후 22개월 생쥐에 1주일간 투여했다. 그러자 생쥐의 세포가 생후 6개월, 즉 사람으로 치면 20세 나이 상태로 변화했다고 한다. 일본의 제약사들은 이미 이 물질이 사람에도 효능이 있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15. 1. 17)"

승리신문은 2005년 6월 이런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과학, 공학, 의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잇따라 영생의 가능성이 발표되고 있는 지금, 최근 급진적인 일부 두뇌공학자들도 이러한 영생의 물결에 합류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한스 모라벡 박사는 금세기에 영생하는 인간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말하는 영생은 인간의 신체는 사라지더라도 두뇌를 컴퓨터로 복제된 후 또 다른 분신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승리신문 2005. 6.15)"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포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수명의 한계는 없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5. 1. 17).

멀쩡한 느껴지던 인간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뉴스들이다. 1981년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영생의 조류를 불러일으킨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뜻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충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3)

###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내가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 전체 잘못된 것이요, 허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서 '나를 항상 버리고 주만 따라 가겠네' 말하면서 내가 천당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불교에서도 무아경지(無我境地)에 이르러야 도통한다고 하면서 내가 부처를 통해서 극락을 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있으니 참 종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종교란 진리구현이 종교요, 인간의 자아(自我)를 버리고 마음을 변화시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일되어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완전한 종교인 것입니다. 중생들을 하나님으로 재창조하는 역사가 참 종교 역사요,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어 죽을 수 없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종교 역사입니다.

이제까지 영생을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고 장담코 외치는 것입니다.\*



## 영생은 감로(甘露)로서만 얻을 수 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체는 양식을 먹어서 썩힘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때 독소물질도 같이 독소가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독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영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승리재단 교인들은 제단에서 예배를 볼 때 조희성 구세주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인 이슬성신(甘露, 甘露海)의 은혜를 늘 받는다. 이슬성신 은혜를 받을 때는 몸에서 종이 타는 냄새와 같은 죄 타는 냄새가 나고, 불덩이 같은 기운이 임해서 온 몸이 뜨거워지며, 그 후에는 입 안에서 뱃속까지 시원한 생수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고, 코 끝에는 백합꽃 향기와 같은 강한 향취를 느낄 수가 있으며, 정신이 맑아지고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이슬성신'을 지속해서 몸에 받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된다. 성격이 바뀌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가 하면, 오랫동안 앓던 병이 완치되고 수대병으로 몸 안의 썩고 탁해진 피가 배출되면서 피가 맑아져서 신체가 젊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슬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분이 나 단기간이라도 강한 이슬 은혜를 받은 분 중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중병환자가 일거에 낫는가 하면, 신체가 젊어지는(更少年) 현상에 의해 젊어졌던 경우가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 흰머리가 점점 검어지고, 새로운 치아가 나기도 한다.

각 경전과 예언서에는 조희성 구세주께서 내리는 이슬성신의 빛이 무한대로 비치면서 노인이 순식간에 16세의 몸으로 회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 부산재단 이영자 총재 초청 예배

새해에는 구세주가 되어 세상을 영생의 세계로 변화시키자



신현옥 여정이 2부 순서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부산재단(김원찬 책임승사)은 1월 11일 승리재단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김원찬 승사는 새해 첫 행사인 만큼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비디오 말씀 중 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되는 것을 준비하였다. 구세주께서는 교인들에게 2002년 8월에 영생의 대 장정(長征)에서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물으셨고, 그에 대하여 "3분지 2 왔다"라고 직접 답변해 주셨다(2002. 8.19 말씀 참조).

위 말씀을 근거로 하여 따져보면 하늘의 역사가 마무리 되는 때를 짐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박태선 장로님께서 1955년 경에 하늘의 역사를 소사에서 처음 시작하셨다.

2부 순서에서는 신현옥 여정이 '목련화'와 '주와 같이 길 오는 것' 두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김원찬 승사가 준비한

'2015년 변화를 입자'는 제목의 동영상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이영자 총재의 말씀이었다. 이 총재는 "작년까지 별인 신앙재정비운동으로 모든 성도가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성장을 하였다"고 전제한 후 "2015년 변화를 입자는 캐치프레이즈 대로 구세주로 변화를 먼저 입은 후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가·구세주의 사명을 다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 총재는 "세상살이가 혼탁해지는 것은 윗물과 먹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간자 구세주의 출현으로 불사영생의 신제품 윗물과 먹물이 탄생했다. 그 윗물을 먹고 성장한, 그 먹물에 철저히 물든 성도님들이야말로 천하무적의 천군천사들이다. 올해는 윗물과 먹물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을 불사영생의 진리로 물들이는 해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6개월만에 열린 초청예배로 부산재단은 은혜의 도가나가 되었다. 2014년 이영자 총재 초청 예배는 1월과 7월에 있었다.\*

## 승사 임명

부산재단 김준응 장로를 승사로 1월 18일자로 임명하였다

축하드립니다. 구세주를 닮는 참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 승리재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진해재단 식구들이 행사 연습을 할 때 내린 이슬성신 서재봉 승사 촬영



진해재단 식구들이 행사 연습을 할 때 내린 이슬성신 서재봉 승사 촬영



진해재단 식구들이 행사 연습을 할 때 내린 이슬성신 서재봉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재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능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재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